

배움역사신문

■ 비움박물관 이영화 관장님에게

“관장님 원래 꿈은 무엇이었나요?”



백아름 옛날 물건을 좋아하나요? 박물관에 가서 많은 걸 봤는데 신기했어요.

백한결 할머니가 박물관에 많은 물건을 어떻게 모았는지 궁금해요.

김지아 비움박물관을 언제 열었나요? 언제 물건을 모았나요?

이도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옛날 도구들을 찾으셨나요? 박물관에 옛날 도구들을 놓는 게 힘들텐데, 수차례 걸쳐 전시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김민준 왜 그렇게 많은 옛날 물건들을 사고 모으셨나요?

이한별 관장님은 왜 전시물들을 모으셨을까요?

양서준 어떻게 이런 많은 물건을 모으셨나요?

김민결 관장님은 왜 시를 쓰셨을까?

김정미 원래 관장님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시를 쓰면서 느낀 감정이나 든 생각이 무엇인가요?

윤선아 비움박물관을 만들기 전에는 전시할 물건을 어디에 보관하셨나요? 시를 쓰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정상익 비움이란 비어있는 아름다움이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일은 즐거운 것 같아요.

이지현 ‘대한민국’이라는 시를 보고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베풀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물건이 내게 말을 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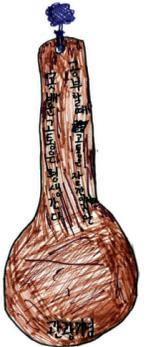
■ 비움박물관에서 인상적 물건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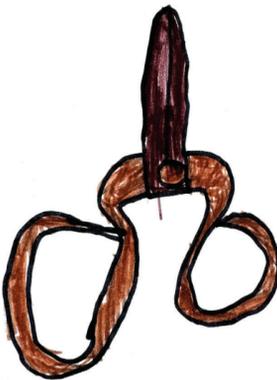
윤선아
비선본집이 색깔 무늬가 예뻐서 마음에 들었다. 비움박물관에 온 소감은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에 대해서 더 알게되어서 좋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봐서 좋았다.



김민결
비움박물관을 와서 조상님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였는지 알 것 같다. 골무가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조상님들의 손가락을 보호해줘서 고마운 마음으로 골랐다.



김찬후
박물관을 둘러보는데 주걱에 적혀있는 글이 마음에 들어서 골랐다. ‘공부할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배운 고통은 평생 간다.’



이도현
요즘에 가위를 많이 쓰고 내 가위는 색깔이 알록달록 한데 인상적으로 본 가위는 갈색이다.



김지아
밭그릇이 예뻐서 마음에 들었다. ‘복’자가 그릇에 있어서 신기했다.

김정미
돌부처님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다. 부처님과 사진을 찍을 때 기분이 신기했다.

이지현
명기는 죽은 사람 무덤에 함께 묻는 그릇이다. 왜 죽은 사람 무덤에 그릇을 함께 묻었을까? 크기가 왜 이렇게 작을까?

이윤석
글이 재미있어요. 조선시대 물건을 여러 가지 알았어요.

백한결
유기그릇이 모양과 색깔이 예뻐서 마음에 들었다. 관장님은 어떻게 물건을 모으셨을까?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을 보니 신기했다.

조상의 역사·문화를 생생히 배울 수 있는 비움박물관



빛자루가 나에게 교실 좀 슬라고 하는 것 같았다. 비움박물관에 온 소감은 비움이라는 말이 들어가서인가 마음을 비우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한별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 버려진 민속품들을 모아서 닦고 어른만지고 보관하다가 좁은 공간이나마 ‘세월의 장터’로 세웠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한반도에서 더불어 살다가 먼저 가신이들의 숨씨와 땀씨와 마음씨를 빗팔로 색깔로 땀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움박물관 : 광주시 동구 대의동 2-1